



한국노총의 또다른 도전, '정책연합' 선언

한국노총의 '97전국노동자대회'

강연배

전국최하노동조합연맹 기획차장

11월 2일 일요일 오후 1시.

깃발을 앞세운 조합원들이 소리 높여 투쟁가를 부르며, 여의도를 가로질러 한강 둔치 LG 야외 무대를 향해 모이기 시작한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기온과 바람한점 없는 화사한 날씨는 김회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가다. 그래서인지 잔디밭 이곳 저곳에는 둘러 앉은 조합원들이 준비해온 김밥을 먹고 있고 머리띠를 두른 모자들의 모습이 많이 눈의 띄었다.

모처럼 만난 대표자들은 서로 인사하기에 바쁘고 조합원들은 모처럼 함께 어울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느라 바쁘다.

'정책연합 성공시켜 생존권을 사수하자'

'확보!! 고용안정 퇴직금 전액, 생위!! 정치활동 전임자 임금.'

무대위에는 '생존권 사수 및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97전국노동자 대회'라는 현수막이 함께 내걸려 있었고, 무대 전면을

장식한 하늘색 천에는 '제15대 대통령은 노동자 손으로'라는 대형 슬로건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전진의 노래'가 모여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만든다.

노총이 얻은 자신감

지난해 11월 24일 이곳 여의도 둔치에서 전국 노동자가 함께 모여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약법 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리해고 분쇄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천만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약법 분쇄하자" 10만 노동자의 함성이 있은지 1년. 대신에서 심판하자는 결의를 다져온 노동약법 철폐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집회가 오늘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노총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어도 정리해고 도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무노동무임금 등 사실상 노동운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동법을 거의 고치지 못했다. 결론론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노총은 실로 오랜만에 투쟁을 조직화하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닐까.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만 명이 넘는 집회를 개최하고 수십년의 크고 작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노총은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게 되었고,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과 비판을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대중조직이 조직원의 참여와 힘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성과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 강화를 선언할수 있었고 오늘과 같은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리라.

대통령은 노동자 손으로

1시간여 동안 식전 공연을 마치고 본대회 예정시간인 2시 두 사회자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선언이 이어졌다.

힘찬 투쟁기와 함께 노총기를 선두로 산별연맹의 깃발, 그리고 심회에 참가한 각 조합의 깃발들이 입장하고 이어 박연상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열띤 박수와 연호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지난 연말과 올해 초 해고와 구소를 불사하는 투쟁을 벌였으나 노동법은 기만적인 형태로 개정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운을 댄 박위원장은 '이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의미한다' 며 반드시 정책연합을 성사시켜 이를 기반으로 2012년 독자적인 집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과 나눔의 공동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의 박수 이어 지난 6월 23일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확정하고 10월 17일 열린 제5차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및 중앙정치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재확인한 정책연합 방침 발표와 정책연합 대상 선정기준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정책수용도 및 실천가능성 500점, 당선가능성 400점, 기타 평가 100점으로 하며, 정책수용도는 노총이 제시한 300대 과제 수용률 및 4대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초청트론회, 의정활동을 기초로 파악하고 당선가능성은 조합원 여론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한울제약 노조의 노래패, 세진전자와 기아특수강 운동패가 등장하여 사이사이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으며, 조합원들은 연신 작은 깃발을 흔들며 노래와 구호를 따라 부르며 걸음을 다졌다.

'재벌경제 개혁하고 정경유착 타파하자',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하고 노조 정치활동 보장하라', '정책연합 성공시켜 생존권을 사수하고 정치역량 강화하

자' 등의 8개항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화다이아몬드, 현대전자, 유유산업, 대원세약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연합 풍물패의 공연이 끝나자 집회장은 새로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다섯개의 커다란 박을 매단 삼각 기둥이 조합원들이 은집한 집회장의 군데 군데로 이동하였고 기둥에 감겨있던 오색 천을 조합원들이 엮으며 흥겨운 대동놀이로 시작되었다.

흥겨운 뱃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색 천을 잡고 돌며 조합원들은 한영 어리가 되었다.

사각 기둥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함께 천을 잡고 달리다 넘어지는 조합원들, 밀적이 떨어져 이 모습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얼굴에는 모두 환한 웃음이 가득하다.

음악이 바뀌면서 대회진행본부는 1만5천여개에 달하는 작은 모래주머니가 담긴





조합원의 힘과 참여를 확인했다는 것, 이것이 한국노총의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자루를 곳곳에 풀어놓았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연상케하는 알록달록한 모래주머니들이 허늘을 날랐다. 동심으로 돌아간듯 조합원들은 사각기둥의 꼭대기에 매단 박을 향해 모래주머니를 던지느라 여념이 없다.

수십, 수백번 부딪혀오는 모래주머니를 견디지 못한 박이 터지는 순간 오색의 봉선이 날아오르고 금빛 색종이가 날리는 가운데 노동자의 희망을 담은 글씨들이 내려왔다.

“대통령은 노동자 손으로”

“노조정치활동 보장”

“전일자 임금쟁취”

와! 하는 함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무대 중앙에는 ‘단결’이라고 쓰인 또다른 커다란 연단이 붉은색, 푸른색 연기를 뿜으며 서서히 미끄러져 나왔다.

박인상 위원장이 손에 땀을 흘리며 치켜들고 미리 마련된 집회대에 불꽃을 붙이는 순

간 전조합원은 자연스럽게 하나가되어 어깨동무를 하고 음악에 맞춰 투쟁가를 불렀다.

“...투쟁의 깃발아래 모여선 우리들 끝없는 모여서 하나 되었는데 동지가 일어나서 앞으로 가자 ... 눈물이 흘러흘러 가슴을 적셔도 가슴이 떠나와 숨이 막혀도 동지여 일어나서 앞으로 가자 자유평등 밝은 꽃 피우기위해 희망찬 미래위해 앞으로 가자 가자 희망찬 내일을 위해...”

정화를 끝낸 박인상위원장의 간절한 호소가 다시 이어졌다.

“동지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 총파업때 우리는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해고와 구속도 불사하고 투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와 우리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정책연합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본대회를 시작한 뒤 한시간 만에 조합원들은 흩어진 휴지를 주워모으며 아쉬운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조차 거르고 먼길을 달려온 조합원들은 짧고 굵게 진행된 오늘의 행사가 오히려 만족스럽다.

한국노총의 새로운 도전

이미 노총은 6월 23일 대선방침을 확정하였고, 9월 10일 300대 정책요구를 확정한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8,9일에는 중앙교육원에서 정치교육 담당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7일에는 노총 중앙위원회와 중앙정치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7대선 정책연합 실천단'을 발족했다.

두차례에 걸친 조합원 설문조사등 노총의 실무진들은 숨가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책연합 실천 기획단은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점검하는 등 지난해 겨울 총파업 당시 비상상황을 방불케하는 긴장감과 진지함이 엿보인다.

그래도 아직 추진해야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일정이 가까와지면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깝게는 공선협과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동반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20일 대선후보들을 초청하여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노총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전국노조대표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직내의 반대의견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정책연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할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노총출신 정치인을 선호'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조직적으로 표현해 보지 못한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친노동자적인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총으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어진 현실과 역량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노동자 의식으로 지역감정을 극복해 보고자하는 노력은 바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노총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집약할 수 있고 이같은 조직적 결정을 조합원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실로 새로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친 노동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단순한 '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책연합 방침은 여러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총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이며,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까지 남아 동지가를 부르며 해산식을 마친 고려산업개발 노조 조합원들이 길길을 재촉하고 돌아선 여의도 둔치에는 서늘한 저녁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